Ⅲ. 2009학년도 1차 선발 시험 해설

언어 영역

1. ⑤	2. ⑤	3. ④	4. ⑤	5. ③
6. ②	7. ⑤	8. ⑤	9. ③	10. ①
11. ③	12. ②	13. ④	14. ①	15. ④
16. ②	17. ②	18. ①	19. ③	20. ①
21. ⑤	22. ⑤	23. ②	24. ④	25. ①
26. ①	27. ③	28. ⑤	29. ④	30. ③
31. ①	32. ①	33. ③	34. ②	35. ②
36. ④	37. ④	38. ⑤	39. ④	40. ②

1. 글쓰기 계획의 구체화

정답 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주제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⑤에서 '혼혈인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주제가 우리 민족의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의 정립이기 때문에 주제의 통일성을 생각할 때 차별적인 시각의 주체는 혼혈인이 아닌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⑤는 '~ 우리 민족의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바로잡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2. 내용 생성하기

정답 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보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이다.

<보기>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 방법의 한 예로 '루브 골드버그 장치'를 말하고 있다. 이 장치는 단순한 일을 복잡하고 번거롭게 수행하는 장치로, 이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뿐 아니라 기발한 과학적 상상력, 유머 감각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장치를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방학 숙제로 만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①의 '논리적인 사고력 향상', ②의 '지식의 실제적 적용', ③의 '창의력 배양', ④의 '지식을 종합하는 능력'은 연결 지을 수 있지만, ⑤의 '각종 경시대회 개최를 통한 협동심 배양'은 연결 지을 수 없으므로 ⑤는 <보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3. 어법

정답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겹받침의 경우, 'ㅄ, ㄳ, ㄺ, ㄾ, ㅈ'은 첫째 자음이 발음되고(예 : 핥고[할꼬], 앉고[안꼬]), 'ㄼ, ㅙ'은 불규칙적으로 발음된다(예 : 넓다[널따], 밟지[밥찌]). 그러나 ㉡에서 제시한 발음 환경, 즉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겹자음 중 뒤의 것만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예 : 넓어[널버], 읽어[일거]).

4. 고쳐쓰기

정답 ⑤

<보기>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물수제비'를 뜨는 장면의 원리가 우주 과학과 항공 공학에 이용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고도 할 수 없고, '터무니없이 거짓되고 실속이 없다'라는 뜻의 '허무맹랑하다'라는 말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을 '허무맹랑하지 않은가!'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의 표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5~8] 작품 해제

(가) 정지용, 『유리창 2』

1~3행에서는 유리창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화자가, 4~8행에서는 목이 마르고 갑갑한 '나'가, 9~12행에서는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13~18행에서는 차가운 도회지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나'가 제시되어 있다. 즉 이 작품은 유리창 안에 갇혀 있는 화자의 밀폐감과 불안 의식을 형상화한 것으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불안하고 부동(浮動)하는 내면 의식을 유리창 안의 세계와 밖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나) 정진규,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1970년대 유신정권 하의 어둡던 시절을 배경으로 고립된 자의 고독하고 쓸쓸한 내면을 형상화하였다.

화자는 꿈이 있어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을 더듬으며 그 시간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기에 화자는 공허감과 상실감을 느끼며 한탄을 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은 과거에 좌절된 꿈으로 인해 현재 화자가 느끼는 고독의 감정을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과의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다) 이건청, 『하류』

이 작품은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나무'를 중심으로 회상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나무'는 시적 화자의 어린 시절을 지켜본 존재이며, 나무의 그늘은 온갖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이면서 나무가 있는 '하류'는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를 함께 지니는 것으로, 흘러간 추억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면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어린 시절을 의미한다. 화자는 그 '하류'에서 순수와 모성적인 세계를 상징하던 나무는 이미 현실에서 재가 된 것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파괴되고 훼손되고 말았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한 그리움의 대상으로서의 나무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존재한다고 하고 있다.

5.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답 ③

(나)는 '어쩌랴~로다(도다)'의 단정적이고 고압적인 어투의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표현하고 있고, (다)는 '거기 나무가 있었네.'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가 시구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③은 적절한 설명이다.

④ 언어적 모순을 통해 정서를 강조하는 역설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⑤ 현재와 과거의 대비를 통해 현재의 결핍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나)와 (다)이다. (가)는 유리창 안과 밖의 세계를 대비하여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6.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②

유리창 안에 갇혀 있는 (가)의 화자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불안감과 밀폐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리창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유리창을 쪼고, 비벼 보지만 결국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리창 안 공간은 '내면의 갈증 고조(㉮)'와 관련이 있고, 유리창 밖 공간은 '내면의 갈증 해소(㉯)'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 시어의 의미 정답 ⑤

(다)는 '나무'를 중심으로 유년 시절의 소중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는 작품으로, 이 시에서 '기러기'가 살았던 '붉은 노을'은 유년 시절 소중했던 추억의 일부로, 화자에게 늘 따뜻한 위로와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추억의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세월의 무상함을 탄식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한 ⑤는 적절한 감상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8. 표현상의 특징 이해 정답 ⑤

<보기>는 한 종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轉移)시켜 표현하는 공감각적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 중, ⓔ는 '노을'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금관 악기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으로 전이시켜 표현한 공감각적 표현이다.

ⓐ, ⓑ, ⓓ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된다.

ⓒ 촉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9~11] 지문 해제

현대 조각의 '정신의 물화(物化)'를 염려하며, 조각이 재료를 깎아 대상의 형상을 모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각과 정신의 조화되는 경지가 살아 있는 듯한 조각을 가능하게 함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조각이 이런저런 형상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닌 정신을 특정한 꼴로 깎아 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리드는 『장자』를 인용해 재경의 조각을 예로 든다.

나무를 찾아 깎기 이전에 며칠간 기를 모으면 주위의 소리에 무감해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 완전히 잊게 되어 그저 내 마음만 남음으로 나무의 마음과 서로 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정도가 되면 그가 깎은 나무는 벌써 자아와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제 마음을 술술 빚어내는 무아(無我)의 유희로 몰입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정신과 조화된 조각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또 소를 잡는 백정 포정이 소를 잡는 솜씨를 기술이 아니라 '도(道)'라고 하는 것도 조각의 도와 통한다. 그런데 현대 조각은 재료의 성질이 조각의 인간화를 앞질러가는 경향인'정신의 물화(物化)'로 치닫게 되지나 않을지 염려된다고 하였다.

9. 중심 내용의 파악 정답 ③

이렇듯 제목과 부제를 묻는 문제는 전체 주제와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현대 조각의 '정신의 물화(物化)'를 염려하여 재경과 포정의 예를 통해 조각은 자기의 마음대로 빚어내는 정신과 조각이 조화되는 경지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의 조각이 물아일체의 경지가 아닌, 재료 자체가 고유하게 지닌 물성(物性)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장자』에 등장하는 인물인, 자기의 마음을 빚어내었던 재경과 포정의 예를 통해 조각과 인간의 정신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10. 글쓴이의 관점 파악과 적용 정답 ①

[A]에서는 조각이 정신과 조화되는 무아의 경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곽희의 소나무 그림이 실제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고 함으로써, 예술가가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된 물아일체의 작품을 말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송렴이 [A]의 관점에서 곽희의 그림을 평가한다면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됨을 보여 주는 그림이라고 할 것이다.

11.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③

㉠의 '정신을 재료에 일치시키는 조각'은 조각이 정신과 조화를 이룬 물아일체의 경지, 즉 제 마음대로 술술 빚어내는 무아의 유희로 몰입하여 조각과 정신이 조화를 이룬 경지를 의미한다. ⓒ의 '조각'도 정신과 조각의 조화를 이룬 재경이란 조각가의 작품을 의미하므로 ㉠과 문맥상 유사하다.
ⓐ, ⓓ 깎고 쪼고 잘라 내는 일반적 의미의 '조각'이다.
ⓑ 자연의 형상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재현한 '조각'이다.
ⓔ 물화가 염려되는 현대의 '조각'이다.

[12~15] 작품 해제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농촌 마을에서 반푼이로 취급받는 가난하고 어리석은 농부 황만근의 일생을 묘비명의 형식을 삽입해 서술한 단편 소설로, 각종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과 메말라 가는 인정을 통해 삶의 어두움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반푼이 황만근은 전쟁 때 아버지가 죽고 유복자로 태어나 편모 밑에서 자라났다. 지능이 모자라 아이들에게까지 놀림의 대상이 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늘 넘어지며, 혀도 짧아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다. 어느 날 자살하려는 처녀를 구해 아들 하나를 얻지만, 여인은 곧 떠나버린다. 이후 그는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들을 부양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염습과 산역, 마을의 똥구덩이를 파는 울력, 가축 도살 등 마을의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다고 공치사를 늘어놓을 재간도 없다.

그러던 황만근이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졌다. 신체검사 받던 날 외에는 단 하루도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는 황만근이 사라진 것이다.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여겨지던 마을 사람들에게 반푼이 황만근의 부재는 곧 자신들의 불편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농가부채 탕감 촉구를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두들 버스나 트럭·승용차를 타고 대회에 나가지만, 황만근만은 이장의 지시대로 백리 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다가 궐기 대회에는 참가하지도 못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만 경운기가 차에 부딪쳐서 논바닥에 처박혀 동사(凍死)하고 만 것이다. 결국 황만근은 없어진 지 일주일 만에 뼈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제시된 부분은 황만근의 부재를 통해 황만근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음은 물론, 누구보다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한 '그립고 미더운 바보'였음이 마을 사람들의 회고 속에 밝혀지는 장면이다.

12. 서술상의 특징 정답 ②

이 글에서는 농민 궐기 대회에 참여했다가 돌아오지 않은 황만근의 행적에 대해 마을 사람들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다. 이 대화를 통해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서로 다른 평가와 태도를 알 수 있다. 지문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황만근을 반푼이나 반근이로 속되게 부르는 말에서 황만근을 무시하는 마을 사람들의 심리적 태도를 알 수 있으며, 이장과 민씨의 대화에서는 서로 다른 황만근의 평가를 알 수 있다.

13. 인물 간의 갈등 구조 파악 정답 ④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 민씨가 이장이 황만근을 모임이 끝난 뒤에 따로 불러 말을 건넸던 것을 추궁하는 장면을 통해 민씨가 황만근을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것(①)과 이 글에서 갈등을 빚는 주된 인물이 민씨와 이장이고(②), 갈등이 발생한 원인이 황만근의 실종(부재) 때문(③)임을 알 수 있다. 또한 ⑤도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④의 이장이 오래 전에 황만근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지는 이 글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14.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①

이 글과 <보기>을 통해 볼 때,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부지런히 사는 농부로, 하늘이 내린 효자로,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진면을 알아본 한 외지인(민순정)의 기림 속에 황만근의 행적이 되새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겉으로 보기에 어수룩해 보이더라도 황만근 같은 삶이야말로 남에게 귀감이 되는 삶이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15. 장르의 변용 정답 ④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이 부재하다는 것을 하루 만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없기도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황만근을 찾는 장면을 화면 분할하여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

히려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찾는 시늉만 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

[16~19] 작품 해제

(가) 『정석가』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을 통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태평성대에 대한 기원을 노래하고 있는 고려 가요다. 서사에서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있으며, 2연부터 5연까지는 소재만 달리할 뿐(2연-구운밤, 3연-옥 연꽃, 4연-무쇠 옷, 5연-무쇠 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고 있다. 6연은 '서경별곡(西京別曲)'의 제2연과 동일한 노랫말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고려 가요가 이별이나 향락의 정서를 노래하는 데 반해,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나) 문충, 『오관산요(五冠山謠)』

고려 시대에 문충이 지은 가사 부전 가요로, '목계가(木鷄歌)'라고도 한다. 효자인 문충은 오관산(五冠山) 밑에 살았는데, 홀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의 집은 서울에서 삼십 리나 떨어져 있었는데, 벼슬살이를 하느라 아침저녁으로 왕복하여 통근하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효성은 변함없이 극진하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날로 노쇠하자 이를 개탄하여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이 노래에서는 나무로 만든 닭이 울 때 어머님이 늙게 되리라고 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 대상이 영원하기를 비는 수법을 활용하였다.

(다) 작자 미상, 사설시조

남을 모함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참언(讒言)에 대한 경계의 교훈적 내용을 개미를 제재로 하여 희화적(戱畵的)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초장에서의 '개야미'는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비유한 것이고, 종장의 '온 말'은 다른 사람의 참언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리고 중장에서 사물을 극단적으로 과장함으로써 일어나는 허무맹랑함을 통하여서는 '온 놈이 온 말'을 한다 해도 거짓일 수밖에 없음을 빗대어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면 대개 그 말을 믿게 되는데, 이 작품은 그러한 위험성을 풍자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시조이다.

16. 작품 간의 공통점 정답 ②

세 작품 모두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 주제를 강조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가)는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 되를 심고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남,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쇠나무 산에 놓고 그 소가 쇠풀을 먹음)을 통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였고, (나)는 나무로 만든 닭이 울 때 어머님이 늙게 되리라고 하였으며, (다)는 개미가 호랑이 허리를 물어 북해를 건넜다는 허무맹랑한 과장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모함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드러냈다.

17. 개별 작품의 감상 정답 ②

제1연에서 '딩'과 '돌'은 각각 '정'과 '석'이라는 악기를 의인화하여 연정의 대상인 '정석'이라는 인물을 나타내었다고 했으므로, 이 노래의 제목인 '정석가'는 1연의 '딩'과 '돌'의 악기 이름에서 빌려온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ㄱ).

또한 1연이 임금의 덕을 칭송하고 태평성대를 노래하여 내용상 나머지 연과 연관성이 긴밀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의식요에 불과하고, 6연이 이제현의 '소악부'에 한역되어 있음을 통해 이 노래가 궁중의 속악가사로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ㄷ).

18. 시어의 의미 정답 ①

(가)의 '한쇼'는 무쇠로 만든 큰 소이고, (나)의 '당닭'은 나무로 깎은 닭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각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가)의 '텰초'는 무쇠로 만든 큰 소가 먹는 풀을 말하고, (나)의 '서쪽으로 기우는 해'는 어머님의 얼굴이 늙어 감을 비유한 표현이다. 따라서 둘 다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이 아니다.

③ (가)의 '삭'은 바삭이라는 의미로 모래의 상태를 말하고, (나)의 '젓가락'은 나무로 만든 닭을 집어다가 벽에 앉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둘 다 화자의 태도 변화와 관련이 없다.

④ (가)의 6연은 '제가 임과 떨어져 천 년을 산다 한들 임에 대한 제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구슬'은 시적 화자의 분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의 '가람'은 개미가 물고 북해를 건넜다는 호랑이를 말하므로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나)의 '꼬끼오'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설정한 상황을 의미하고, (다)의 '온 말'은 화자를 모함하는 온갖 말을 의미하므로 서로 문맥상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19.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정답 ③

(다)의 시적 화자는 모든 사람이 허황한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더라도 임(금)께서 바로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짐작하기

를 바라고 있다. ③의 화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임(금)의 사랑을 다시 얻고 싶은 소망을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화자와 ③의 시적 화자는 임금에게 자신의 소망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참고로, '정과정'은 귀양 간 정서가 유배지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임금의 사랑을 다시 얻고 싶은 소망을 간곡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①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는 아내의 태도가 드러나 있는 백제 가요이다.
② 임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④ 임에 대한 뜨거운 연정을 노래하고 있다.
⑤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고 있다.

[20~23] 지문 해제

> 프루시너는 우연히 정상 단백질이 어떤 원인에 의해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하면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며 신경세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단백질을 프리온이라고 명명하여 학계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당시 분자생물학계의 중심 이론은 크릭에 의해 주창된 유전 정보 중심설로, 이는 프루시너가 주장하는 내용과 달랐다. 따라서 프루시너의 주장은 분자생물학계를 흔들게 되고, 아직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복제하는 단백질'이라는 프리온의 개념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매우 험난한 과정이 필요했다. 과학자들은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대했을 때는 어떻게든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해 내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
> 이 글은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의 예를 통해 새로운 이론이 받아들여지기까지의 험난함을 보여 주고 있다.

20. 개괄적 정보의 확인 — 정답 ①

네 번째 단락의 '정상적인 단백질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단 [PSI+]로 변하고 나면'이라는 부분에서 단백질이 프리온으로 변하는 원인은 확인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섯 번째 문단의 '~프리온의 존재는 분자생물학뿐 아니라 생물학 전체를 뒤흔들만한 가설로 이어지고 있다. ~ 린드퀴스트의 이 가설은 현재 진화력(進化力)과 관련하여 생물학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첫 번째 문단에서 프루시너가 병에 걸린 동물을 연구하다가 프리온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④ 두 번째 문단의 '크릭에 따르면 모든 동식물의 세포에서 ~ 번역의 과정을 통해 단백질로의 전달이 이루어진다.' 부분에 나와 있다.
⑤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1. 다른 상황에의 적용 — 정답 ⑤

이 글에서 제시한, '유전 정보 중심설'이 중심이던 분자생물학계에 등장한 프리온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기까지 과정은 <보기>에서 천동설이 중심이던 과학계에 지동설이 등장해서 받아들여지기까지의 과정과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후에 진실로 인정되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기>의 천동설이 지동설 이후 완전한 거짓으로 밝혀진 것과는 다르게 프루시너 이전의 이론들이 프루시너 이후 더 이상 인정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⑤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① 당시의 중심 이론들이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② 아리스타쿠스에 의한 지동설은 당시 천동설로 항성과 행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자 무시되었지만 계속된 이상 현상들의 발견으로 학문적 위기의식이 팽배하던 시기에 제기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학문적 위치에 서게 된 사실을 근거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이 글의 네 번째 문단의 '사실 프루시너에 앞서 1965년에도 효모를 이용한 유전학 실험에서 기존의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는 유전 현상이 발견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기존 이론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이 글의 세 번째 문단을 통해 프리온이라는 단백질 개념이 분자생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매우 험난한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과학자들이 충분하지 못한 증거를 가진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대했을 때는 어떻게든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해내려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22. 생략된 내용의 추리 — 정답 ⑤

㉠의 앞부분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프리온이 진화론과 관련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실험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진화론이 등산에 비유될 때 동반을 쉽게 할 수 있는 유전학적 스위치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에는 프리온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체의 진화력을 높이는 유전자일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⑤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3. 단어의 짜임 이해 — 정답 ②

ⓐ의 '뒤흔들만한'에서 '뒤-'는 접두사로 동사 앞에서 '몹시, 온통, 마구'의 의미로 쓰였다. ①의 '뒤끓다', ③의 '뒤얽다', ④의 '뒤틀다', ⑤의 '뒤섞다'도 이러한 의미로 쓰였다. 하지만 ②의 '뒤엎다'의 '뒤-'는 '반대로 또는 뒤집어'의 뜻이다.

[24~28] 지문 해제

피타고라스 학파는 오르페우스교라는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하나의 종교 집단이었고 피타고라스가 신봉하던 오르페우스는 인류 최초의 음악가였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교단은 음악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 또한 피타고라스 학파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신비에서도 수의 조화를 찾아냈다. 옛날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고 그 생명들과 언제든지 교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현대를 사는 우리는 자연과 교감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술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주와 교감하는 시인은 피타고라스가 우러르던 바로 그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글은 자연과 교감하지 않는 현대에서 예술의 분야에 고대인의 심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주와 교감하는 시인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에 대해 묻고 있다.

24. 세부 내용의 이해 및 확인 정답 ④

(가)를 보자. 피타고라스가 살던 당시 그리스 철학계에서는 이 세상의 다양한 사물과 변화무쌍한 현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것을 찾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다른 학파와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數)를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것' 즉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당시 그리스 철학계의 유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④는 이 글의 내용과 다르다.

① (나)의 '현의 길이를 1/3만 줄이면 ~ 한 옥타브 올라간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의 '하늘에도 수의 조화가 지배하고 있다.', '천체의 운행 자체가 거대한 교향곡이 아닌가.', '우주의 조화는 음의 조화, 곧 아름다운 화음으로 여겨졌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마)의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의 '그 당시는 비유가 논증의 방식이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25. 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 ①

이 글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우주와 교감하였던 내용을 시작으로 옛날 사람들은 자연과 교감하였지만 현대에서는 예술의 분야에만 고대인의 심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주와 교감하는 시인의 모습이 과학적으로 거짓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이를 믿고 싶어 하며, 이러한 것들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지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인류의 삶에서 예술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6. 글의 흐름 파악 정답 ①

<보기>는 수의 중요성과 수가 왜 '근본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것'을 찾는 당시 철학계의 유행에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만물의 근원을 수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의 (가) 단락 뒤에 전개되는 것이 적절하다.

27. 문맥적 의미 파악과 적용 정답 ③

㉠의 '생각했다'는 문맥상 '믿었다', '판단했다'의 의미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③이다.

① '염려하다, 걱정하다'의 의미이다.
② '바라다, 소망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고려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추억하다, 회상하다'의 의미이다.

28. 구체적 작품의 적용 정답 ⑤

㉡은 옛날 사람들이 자연과 세계를 대하는 태도로, 모든 것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들과 교감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모습이 엿보이는 작품은 ⑤이다. ⑤는 거북이 아내를 앗아 갔다고 생각하여 만약 거북이 아내를 내놓지 않으면 잡아서 구워 먹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숭배 사상(토테미즘)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① 꾀꼬리 한 쌍의 다정한 모습과 대비되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노래하고 있다.
② 왕과 신하와 백성의 본분을 가족 관계로 비유하였다.
③ 위험을 무릅쓰고 꽃을 꺾어 바치는 노인의 연정이 드러나 있다.
④ 부모님의 사랑을 농기구에 비유하여 어머니의 깊고 큰 사랑을 강조하였다.

[29~32] 작품 해제

(가) 장유, 「곡목설(曲木設)」

나무를 통해서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나무의 모습을 통해 인간 세상을 비추어 생각하는 유추의 방식을 이용해서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다. '장씨' 성을 가진 자가 집을 짓기 위하여 나무를 베러 산에 갔다가 한 그루의 나무를 발견하였는데 정면에서는 분명히 곧았지만 뒤쪽에서 보니 형편없이 굽은 나무였다. 이렇

게 굽은 나무를 재목감으로 잘못 인색했던 체험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한편, 물욕이 진실을 어지럽히고 이해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천성이 굽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굽은 나무는 나무의 천성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재목감은 안 되기 때문에 목수에게 버려지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고 항상 행운을 잡는다며 이를 개탄하고 있다.

(나) 이태준, 「수목」

큰 나무의 모습을 통해 남에게 베푸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내용의 수필이다. 글쓴이는 자기 자신의 체험과 책의 이야기 내용을 연상 작용에 의해 하나로 연결시킴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는 큰 나무를 그리워하며 충무공이 살았던 마을의 고목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여름에는 바다 같은 깊고 푸른 그늘에 살고, 가을에는 온통 낙엽에 묻혀 살며, 겨울밤에는 우렁찬 바람소리를 베푸는 큰 나무 아래서 큰 나무와 더불어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29.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답 ④

(가)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행운을 잡고 조정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을 개탄하기 위한 도구로 '나무'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글쓴이가 큰 나무를 바라보며 더불어 살고 싶다는 소망, 즉 '큰 나무'에서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었다.

30.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③

(가)의 글쓴이는 "이 세상에서 굽은 나무는 아무리 서투른 목수일지라도 가져다 쓰지 않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조정 대신들 중에서 정직한 도리를 간직하고 있는 자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보면 굽은 나무는 항상 불행을 겪고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자가 항상 행운을 잡는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글이 궁극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태의 변화를 바라는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1.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①

㉠은 말과 얼굴, 행동 모두 군자의 모습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본색이 드러난다는 의미이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함을 드러낸다. 이와 통하는 한자성어는 ①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변변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②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말

③ 닭의 주둥이와 소의 꼬리라는 뜻으로, 큰 단체의 꼴찌보다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나음을 이르는 말

④ 보는 앞에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뒤에서 비방과 욕설을 한다는 말

⑤ 군자는 일정한 용도로 쓰이는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군자는 한 가지 재능에만 얽매이지 않고 두루 살피고 원만하다는 말

32. 내용의 이해 정답 ①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나무는 클수록, 늙을수록 좋다고 하면서 ⓐ의 '열매'는 잔가지에 열어 휘어짐에 그 한두 번 바라볼 만한 아취라 하였으므로 ⓐ는 ㉡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작은 나무가 주는 혜택이다.

[33~35] 지문 해제

보통 글의 경우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전제로 하여 쓰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읽기 쉬운 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타인이 읽기 쉬운 글을 위해서는 적합한 언어를 찾아내어 효과적으로 글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어떤 착상이 떠오르면 우선 메모를 하고, 시간이 생길 때에는 원고지에 써 보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을 작성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는 명확하고, 바르고, 간결하게 쓰는 것이다.

33.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③

글쓴이는 글을 쓸 때 적합한 언어를 찾아낸다는 것은 마치 기계를 조립할 때 알맞은 부속품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착상의 과정을 부화의 과정에서 계란의 노른자에 피가 돌고 날개가 생기게 되는 것에 비유하였다. 또한 문장 하나하나가 모여 글을 이루는 것을 벽돌을 쌓아 올려서 훌륭한 건축물을 이루는 것에 비유하여 글쓰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34. 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 ②

이 글에서는 메모의 방법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생각난 글감을 잊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써 메모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따라서 ②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①은 첫 번째 문단

에서, ③은 세 번째 문단에서, ④는 두 번째 문단에서, ⑤는 다섯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 구체적 사례의 적용 정답 ②

[A]에서 제시한 문장 작성의 방법은 명확하고, 바르고, 간결하며 통일성 있게 쓰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은 ②이다.

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문장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서 간결하지 못하다.
④ '반듯이'를 '반드시'로 고쳐야 올바른 문장이다.
⑤ 통일성이 없는 문장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 후, 뒷 문장에서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지 않고 장점을 서술하였다.

[36~40] 작품 해제

작자 미상, 「홍보가」

박봉술 창본의 판소리로, 표면적으로는 흥보의 가난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을 통해 당대의 경제적 현실을 중심으로 한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제시된 부분은 가난한 흥보가 환자섬을 타기 위해 관가에 가면서도 가기 전 양반의 체통을 생각해 의관을 갖춰 입는 장면과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아전들에게 매품을 팔기를 권유받아 돈을 받아 온 장면이다. 명색이 양반이기에 아전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며 가던 흥보지만 막상 매품에 따른 돈 이야기가 나오자 금방 존대를 하면서 염치없이 군다. 일단 돈을 받아 온 흥보는 그 기쁨을 아내와 함께 하지만 아내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36. 서술상의 특징 정답 ④

이 글은 판소리로 민중의 해학이 가득 담긴 장르답게 비속어나 방언 등의 구어체가 많이 쓰여 현장감을 높이고, 의성어나 의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으며,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거나 인물의 해학적 행동을 통해 청자의 웃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양반의 취향을 고려하여 한자성어나 한시 등의 한문투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④는 바른 설명이 아니다.

37. 표현상의 특징 이해 정답 ④

<보기>에서 말하는, 창자가 개입하여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해석, 판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다. ⓓ에는 돈을 내 주는 아전의 거만한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는 청자의 판단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38. 독자의 감상 정답 ⑤

[A] 부분은 흥보가 관청에 가기 전 의관을 갖추는 장면이다. 남이 바닥이 존존해서 못 쓰고 흥보에게 준 갓을 끄시럼에 끄실려 쓸려고 굴뚝 속에다 둔 장면이나 도복을 닭장에다 두고서는 닭장을 자신의 장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가난한 상황인데도 재담을 늘어놓는 흥보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우습게,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표현한 것이다.

39. 판소리 장단의 이해 정답 ④

<보기>에서는 판소리의 장단(長短)을 설명하고 있고, [B]에서는 흥보의 의관 차림을 자진모리 장단을 사용하여 나열하고 있다. <보기>를 통해 볼 때, [B]는 빠른 장단에 맞춰 창으로 부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빠른 장단의 [B]와 같이 자진모리 장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④이다. 심 봉사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긴박한 장면에 적절한 장단인 자진모리가 어울린다.

②, ⑤ 한탄하는 내용이므로, 사설의 극적 전개가 느슨하고 서정적인 진양조 장단이 적절하다.
③ 어구의 반복이 계속되고, 호흡이 빠르므로 가장 빠른 장단인 휘모리가 적절하다.

40. 속담의 활용 정답 ②

㉠은 흥보가 매품을 팔아 닷냥을 받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의기양양하여 지나치게 우쭐거리는 모습이다. 이러한 행동이나 태도와 어울리는 속담은 ②이다. 이는 상투가 더부룩하게 솟아오르는 국수버섯처럼 우뚝하다는 뜻으로, 되지 못하게 잘난 체하며 함부로 남을 시키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① 분에 넘치는 행동을 이르는 말
③ 재주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분에 넘는 남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
④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득세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대단치 않은 자가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거만을 피우며 저보다 나은 이를 업시여김을 이르는 말